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경제로 세상보기

인물과의 만남

빛고을에 살며

정론·문화평론



안톤 솔츠

“

한국에서는  
‘오래된 물건’은  
‘쓸모없는 물건’으로  
‘새로운 것’은  
‘좋은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종교칼럼



홍숙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된다”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해를 못 함으로 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극히 살인까지도 일어난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면서도 막상 그리 쉽지 않다.

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경험하면 서 굳어지는 각자의 모든 틀이 다 다른 것이다. 자기만의 생각하는 틀이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위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착각을 불교에서는 아상(我相)이라고 본다. 사상(四相)-아상(我相), 인

을 찾는 실험이 있었다. 몇 개의 사진 가운데 호감 가는 이성을 지적하는 실험이었는데 참 묘하고 신기하게도 대체로 모든 사람이 찾은 호감 가는 스타일의 이성이란 지적한 사진은 다름 아니라 실제 이성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편집한 사진이었다.

이 실험으로 사람들은 그만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은 간에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위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착각을 불교에서는 아상(我相)이라고 본다. 사상(四相)-아상(我相), 인

## 모든 것을 자기본위로만 생각하여

얼마 전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 시즌 2-착각을 통해 인간 진실에 다가서다’가 방영되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인간 심리를 추적한 결과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만 믿고 싶어한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상 그것이 착각이다 …’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어하고 믿는 대로만 믿고 싶어한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상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다.

‘착각-어떤 사람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현상’이라는 주장적인 소재를 다양하고 기발한 실험 영상을 통해 인간 행동의 진실을 밝히는 참으로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착각의 실험 중에서 호감 가는 이성

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 중 가장 먼저 있는 아상.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말한다. 이 아상이라는 착각에 가려서 세상과 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시비아해를 바르게 보지 못하여 곤란하고 해 속에서 혼매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어쩌면 상대의 문제이기에 앞서 나만 옳고 좋다는 자기본위의 생각의 틀(아상-착각) 때문이 아닐까?

어느 드라마의 대사였는데 계속 여운을 주는 대사가 있다.

“정말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원불교 비아교당 보좌교무〉

## 안경점 아닌 안경사·안경원으로 고쳐 써야

안경사는 안경원을 운영하는 단순한 자영업자 아니다.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가 공인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안경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자격과 절차를 딛은 안경사들이 몇 년전에 만들어져 그 명칭도 눈 건강을 다루는 사람을 ‘안경사’, 그 안경사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안경원’이라고 칭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유명한 모든 국어사전을 들춰보면

## 일회용품이 판을 치는 세상

2년 반을 기다린 끝에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아파트로 이사 갈 시간이 되었다. 6년 전쯤에 짐이라고는 필요한 물건들로 꽉 차운 배낭 하나를 짊어 메고 광주에 왔었다. 그러나 6년이라는 시간은 평화로운 시간이었는지 그동안 모아두었던 물건들을 처리하는데 나는 아래와 함께 고군분투를 해야만 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광주에 오기 전 독일 집에서 잡다한 살림살이들을 팔아 한국생활의 밀전을 마련했던 일이 생각났다.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일은 제법 재미난 일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그만한 공을 들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이사에서도 지난 독일에서처럼 쓴 재료들을 한국의 베룩시장에서 다시 내다 팔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낙관적인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다.

10대에 들었던 나의 낡고 오래된 카드트레이프는 독일의 경매인터넷 사이트의 도움으로 회귀본으로 취급되어 내게 온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마다 있었다. 게다가 한국에서라면 외면당할 만한 낡은 옷가지나 전자제품 그리고 가구에 이르기까지 팔 수 없는 물건이 정도였다.

2003년 광주에서 세 살을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마련한 작은 목돈으로 나도 중고물품을 파는 상점을 돌아다니며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었다. 그런 경험에선지 내가 쓴 물건을 되파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중고품 가게에서는 내 물건을 사는 데 관심이 있는가니 대신 버려주는 대가로 돈을 내야한다고 했다.

쓰던 물건을 판 돈을 보태 새 물건을 사겠다던 나의 애착 계획은 오히려 독일에서라면 거뜬히 몇백 만원을 건질 수 있을 만한 멀쩡한 물건들을 쓰레기들로 내버려야 하는 현실에 무참히 좌절되고 말았다.

한국에서는 ‘오래된 물건’은 ‘쓸모없는 물건’으로 ‘새로운 것’은 ‘좋은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바뀌길 바라왔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랬다.

독일에서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데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계절마다 있는 ‘대형 쓰레기의 날(Sperrmüll-Tag)’은 내 어린 시절 최고 신나는 날로 기억된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날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는 제법 큰 물건들을 길가에 내놓고 저녁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물건을 골라 가져 갈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이날이 되면 오후 무렵 친구들과 모여 이웃집들을 돌아온 물건을 찾거나 냅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독일의 ‘대형 쓰레기의 날’도 없어졌다. 지금은 특수쓰레기장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도록 되었다.

그 후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의 선전을 통한 온라인 중고경매마켓인 ‘이베이(Ebay)’가 인터넷 성공화 스토리 중 하나로 떠올랐다. 갑자기 어렸을 때 사라졌던 ‘대형 쓰레기의 날’이 온라인상에서 부활한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팔 수 있고 내가 제시하는 물품과 조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처음

접한 이후로 나는 광적인 ‘이베이 쇼퍼(Shopper)’가 되었다. 중고 경매에서는 단순히 돈을 쓰고 버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 물건값을 배팅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 흥미진진한 재미마저 느낄 수 있다. 또한, 나의 쓰레기로 지구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내 물건으로 행복해질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베이’나 다른 좋은 온라인 마켓이 전세계에 걸쳐 큰 성공을 거두는 사이 한국에서 ‘이베이’는 완전히 실패했다. 물론 지금 한국에도 ‘이베이’와 비슷한 온라인 마켓-그 중 일부는 ‘이베이’ 회사에서 소유-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껏해야 거의 새 물건이나 다름없는 물건을 판다거나 극히 일부 개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통의 온라인 마켓과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나니 중고 물품의 상거래나 재활용의 실제와는 달리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한국이 독일보다도 월씬 앞서가는 것 같다. 무엇인가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아파트 안에 마련된 최신식 쓰레기장에는 종류별로 수거통이 빼짐없이 고루 갖춰져 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는 데에는 애써 배우고 실천하면서 와 남이 쓰던 물건들이 여전히 좋고 쓸모 있다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조선대 동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실적쌓기용인가

자치단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공공부문 건설은 다소 숨통이 트인 데 반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이다.

13일 현재 광주는 상반기 목표액 1조4천921억 원 대비 1조3천292억 원을 집행(89.1%)해 최우수 자체로 선정됐다. 전남도 역시 목표액 2조5천800억 원 대비 1조8천741억 원(72.7%)을, 도내 22개 시·군도 1조8천억 원을 집행(51.9%)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광주·전남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는 제자리다.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서비스업과 소비는 극히 부진한 상태다. 광주·전남 지역을 14분기 비제조업 매출 BSI(기업 경기실사지수·기준치 100)는 62로, 전년 4분기 74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전남의 음식점수는 전년 3월 1만6천611개에서 올 3월 1만6천591개로 줄었다. 반

## 전남경찰 고위간부 기강해이 도 넘었다

극히 일부에 국한된 추태이긴 하지만 ‘민중의 지팡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 총경급 경찰 간부가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1주일도 채 안돼 이번에는 또 다른 총경이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직위해제됐다. 그것도 이들 두 총경이 전남경찰청 소속이라고 하니 지역 경찰이나 지역민들이 얼굴을 둘 수 있게 됐다.

전남경찰청은 14일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아온 A 총경을 직위해제 했다. 공공연한 업

문으로 지역 사회와 경찰 내부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A 총경을 직위해제 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에는 전남경찰청 B 총경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2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비록 이들 두 총경은 관련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를은 의혹을 살만한 처신을 한 것은 틀림

없는 듯하다.

경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부정비리를 없애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이 아닌가. 그런데 일선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고위간부가 검은 돈을 받아 행기고 여직원과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이는 경찰관 제복을 부끄럽게 만들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간부들이 이 모양이 일선 경찰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뻔 뻔 민생지지도 경찰의 기강해이가 주된 원인이다.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 잇단 경찰비리를 질타했다. 경찰청은 부정비리 근절 및 근무기강 확립 대책까지 내놓으며 초 긴장상태다. 모든 경찰은 바짝 조심하고 있는데 유독 광주·전남 경찰만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왜 계속 나사가 풀려 있는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간부들의 흐트러진 기강부터 다잡는 게 경찰 비리를 막는 첫 단추다.

## 無等鼓

볼링족(Malling 족)이란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쇼핑·놀이·공연·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볼링’을 즐기는 신 소비층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쇼핑시설과 함께 멀티플렉스 영화관, 공연장, 레스토랑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는 복합 쇼핑몰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쇼핑 자체를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물렁족이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동양 최대 규모의 부산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문을 열면서 우리 나라도 ‘볼링’이 명실상부 쇼핑의 새로운 트렌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무색하게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오픈 이후 보름간 방문객 120만 명, 매출액 350억 원, 센텀시티 지하철역 하루 이용객 부산 1위라는 엄청난 기록들을 양산해내 ‘도심 속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걸맞은 폭발력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물렁족들

거리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물렁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버스터미널이 있어 전국의 물렁족들이 찾는 호남의 대표명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불어 부산 센텀시티의 성공을 뛰어넘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길 기원해 본다.

/김일환 어촌체육부장 kih8@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皓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 부 2200-692	경영 2 부 2200-511 문화 2 부 2200-541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79	광고마케팅국 2200-521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독자서비스국 2200-65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7-9500>
<F A X 222-4267>	보도국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